

농업계 동향

OECD, 우리나라 PSE 수정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국가별 농업보조지표인 생산자지지추정치(PSE)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이 국제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OECD는 한국산 쇠고기에 대한 PSE 산출법이 잘못되었다는 우리 측의 주장을 수용, 2001년 이후의 우리나라 PSE 수치를 수정하였다.

PSE는 1986년 OECD에 의해 개발된 국가별 농업지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가 환율·품질·소비자 기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PSE는 이를 모두 보조금으로 산정하는 문제점이 있다. 즉, 한우의 경우 수입쇠고기와의 품질 차이가 큰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품으로 간주하고 가격을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PSE는 60%(2007년 기준)로 아이슬란드의 61%에 이어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 EU의 PSE는 26%, 미국은 10%에 불과하다. 즉, 우리나라처럼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가 큰 국가는 농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아주 적음에도 PSE 수치만 볼 때 아주 높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OECD가 수용한 새로운 PSE 산출방식(관세만 이용해 산출)에 따른 2001~2007년 우리나라 평균 쇠고기 PSE는 62%에서 29%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농축산물 PSE도 62%에서 58%로 감소할 전망이다.

향후 우리 정부는 관세 이외에 시장가격지지를 위한 개입을 하지 않다는 점을 OECD에 적극 알려야 한다. 그리고, 국산과 수입산 간 품질 차이를 인

정받아 쇠고기 이외의 다른 농축산물의 PSE 산출 방식도 개선하는 등 추가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과제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마무리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월 28일~11월 17일 농협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과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신·경분리 문제가 제기된 것이 그 배경이다. 특히, 최근 금융위기 이후 신용사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의 시급성이 대두된 바 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작년 하반기부터 구조개편을 추진해왔으며, 이와 별개로 농민단체, 농협, 학계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위원회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 입법예고된 이번 「농협법동조 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 농협중앙회를 3개 부문으로 독립법인화하여, 농협연합회와 NH경제, NH금융 등 2개 지주회사 및 자회사 체제로 개편한다. 연합회는 교육·지도·감사·농정활동 등 교육 및 지원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경제·신용사업 부문은 NH경제, NH금융 등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담당한다.

본 입법예고안에 대해 농협개혁위원회(이하 농개위)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농개위 공식 해체를 선언하는 등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농개위는 입법예고안이 경제사업을 잘하는 농협을 만들어야 한다는 농민들의 염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상호금융연합회를 별도 규정으로 설립을

보류하고 자본금 배분문제는 언급을 누락하는 등 농개위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농민단체 역시 이에 반발하여 지난 11월 13일 23개 농민단체와 농업계 인사 등이 참여한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를 발족하였다.

이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11월 17일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어, 이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한 뒤 금년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품목별 대표조직 설립 현황

농림수산물식품부는 농축수산물의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존 품목조직의 효율성 향상을 기하기 위해 19개 대상을 선정하여 품목별 대표조직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11월 23일 현재 설립 완료된 품목은 9개(감귤, 납치, 우유, 백합, 단감, 김, 사과, 배, 인삼), 11월 중 추진 중인 품목 3개(배추, 딸기, 버섯), 연내 설립 목표인 품목은 17개(쌀, 마늘, 고추, 토마토, 포도, 닭, 달걀, 오리, 양봉, 양파, 파프리카, 한우, 양돈, 고등어, 멸치, 오징어, 전복)이다. 감귤과 납치는 지난해 12월 설립되었고, 우유는 기존의 낙농진흥회를 중심으로 대표조직 구성을 마쳤다. 사과와 배는 지난 11월 19일과 23일에 조직화되었다.

농식품부는 품목별로 설립된 대표조직의 조직화 정도와 역량에 따라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정책 파트너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대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사업 지원 시 대표조직 구성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사업 지원체계를 대표조직 중심으로 통합해 나갈 방침이다. 즉, 기존에 지자체가 담당하던 정부와 농가 간 연결고리 역할을 앞으로는 대표조직이 맡도록 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기 선정된 29개 품목 이외에 생산 규모는 적으나 발전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

도 자율적으로 대표조직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배 껍질의 얼룩, 곰팡이가 원인 -농진청, 배 저장 중 과피 얼룩증상 발생원인 규명-

농촌진흥청은 배 저장 중에 표피에 얼룩이 생기는 '과피얼룩증상'의 발생 원인이 곰팡이의 일종(Gloeodes pomigena)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냈다.

최근 배 저장 중에 발생하는 과피얼룩증상에 대해 농업인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아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한 결과, 불완전균에 속하는 곰팡이의 일종인 그을음병균(Gloeodes pomigena)이 원인으로 사과의 그을음병과 같은 병원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원균은 생장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침입 후 발병까지 환경에 따라서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며, 포장에서 유과기에 병원균을 접종한 결과, 수확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수확 2주 후야 얼룩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저장 중인 배의 과실 표면에 얼룩증상의 정확한 원인을 배 재배농가에게 알리고 과실의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 재배 시부터 저장까지 예방에 철저해주시기를 당부했다.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 박종한 박사는 "방제 방법은 우선 재배과정에서 통풍을 고려한 합리적인 전정과 포장 위생관리에 주의해야 하며, 동계약제로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하고 매년 피해가 있는 과수원에서는 봉지를 씌우기 전에 이 병원균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카바메이트 계통이나 벤지미다졸 계통의 약제 살포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장고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도 피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돼지 성장촉진 ‘항생제 대체’ 할 미생물 개발

- 돼지 면역력, 생산성 향상은 물론 녹색양돈에 기여-

농촌진흥청은 돼지의 생산성 향상과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개발해 돼지농가에게는 경쟁력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녹색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어린 돼지는 설사 등 소화기 관련 질병에 약해 성장이 위축되거나 죽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때문에 성장촉진용 항생제를 사료에 첨가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는 전면 금지 될 예정이어서 항생제 없이도 돼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항생제 대체 기술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돼지의 생산성 향상과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돼지 전용 미생물인 유산간균, 바실러스 및 효모를 개발했다.

농촌진흥청 양돈과 김동운 박사는 “어린돼지에 미생물을 급여한 후 분변의 항체를 분석한 결과, 소화관에서 분비되는 항체가 17% 증가해 장관면역력이 향상됐다는 결과를 얻어 어린돼지에서 발생하기 쉬운 소화기관련 질병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출하시까지 지속적으로 미생물을 급여한 결과 일당증체량이 8% 증가하고, 출하일령은 6일 감소했다. 따라서 전체 양돈농가의 10%가 미생물을 사용할 경우 연간 약 120억원의 사료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항생제 첨가보다 미생물 급여시 일당증체량이 4% 증가해 항생제 대체효과가 입증되어 항생제 대체용 생균제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양돈과장은 “국내 만성소모성 질환 등으로 돼지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어, 이번에 개발된 미생물을 이용하면 생산성 향상 뿐 만 아니라 무항생제 돼지고기 생산이 가능하므로 양돈현장에 미생물 이용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농촌진흥청>

대추발효 ‘미생물제’ 먹인 젓소 ‘튼튼’

- 농진청, 농가실증시험 통해 설사발생율, 폐사율 감소 밝혀 -

농촌진흥청은 농가실증시험을 통해 개발한 ‘대추발효미생물제’가 수송아지의 설사발생율과 폐사율을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충북 괴산의 한 농장에서 수송아지 50여두를 대상으로 ‘대추발효미생물제’의 급여효과를 시험한 결과, 대추발효미생물제를 급여한 송아지가 그렇지 않은 송아지에 비해 사료이용성이 높고 설사발생률은 낮으며 폐사율도 13% 낮았다.

우리나라 젓소 송아지 설사 발생률은 97.2%이고 이 중 12.1%가 폐사되는데, 이는 한 해 총 생산되는 약 17만 3천 마리의 젓소 송아지 중 약 2만 마리에 해당된다.

이런 폐사축으로 인해 송아지 생산비 2,467천원/두(2008, 통계청)를 감안할 때 연간 약 493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되며 아울러 육우고기 생산에도 큰 손실을 보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은 “대추발효미생물제” 이용기술을 농가에 보급해 젓소 초유 떼기 수송아지의 설사발생율과 폐사율을 줄임으로써 송아지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친환경 안전 육우(젓소)고기 생산에도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촌진흥청> ㉞